

여고 및 교대생에게 교련과목 실시!

대한간호협회 총무 윤수복

문교부가 지난 7월 28일자로 발표한 바 있는 여고 및 교대 여학생에게도 남학생과 같이 「교련과목」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교련과목 내용으로 구급처치등 간호를 주로 하여 그 장의를 현 가정과 교사들을 훈련시켜 담당토록 한다는 문제가 전회원의 주목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기본 교육과정으로 간호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기 위한 과목을 실시하게된 것은 국민의 위생관념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우리 전 회원은 국민과 더불어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과목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가하는 문제가 우리의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현재 간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졸업자들이 많은데 가정과교사를 훈련시켜서 이 과목을 담당케 한다는 것은 간호학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본회에서는 곧 문교부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봄과 동시에 그 모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8월 상임이사회를 앞 당겨 이 문제를 논의, 문교부장관과 국회 문공위원회에게 전의서를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전의서를 정식으로 접수시키는 한편 다시 문교부를 방문, 과학교육국장 보통교육국장 장학실장등과 면담, 전의서의 내용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은 교련과목이기 때문에 해당직원이 모르는 동안 진행되었으나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시정책으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때 가정과교사가 담당케 한다는 방침을 세워 문을 넓게 열어 놓았고 7일에는 전국 학무국장회의를 열고 이점을 시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의한 첫째문제를 법적으로 다루어서 법제처에 넘기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전의의 첫째문제를 설명하고 꼭 삽입하여 끌것을 부탁했지만 이 일을 성공하려면 계속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간호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간호사업이 간호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요구도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의 책임 또한 증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간호원 수급의 대비책,
국민의 기본교육 교과정까지 담당해야 하는 우리의 영역확대.

우리의 권한을 찾는 동시에 의무 또한 크다는 것을 전 회원은 자각하여 이 의무가 무엇인지 반성하고 국가시책에 호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건 의 서

지난 7월 28일자 문교부 발표 “고대 및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교원과 교육과정(구급처치 및 간호학) 제정의 건”에 관한 정부시책에 대하여 여성의 기본교육 과정중 간호에 대한 기술습득의 필요성을 항시 절감해오던 본 협회로서는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실천방안에 있어서 비공식 소식에 의하면 가정과교사를 훈련케하여 등 과목을 담당토록 계획중이라 하는 바 비록 일시적 조치라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모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다음 전의안을 제출하오니 글번 계기에 이를 즉각 반영하여 주시기 간절히 요청합니다.

전 의 건

1. 여자고등학교 교과과정 중에 간호과(看護科)를 녹립된 교과활동으로 관계법규(고등학교 교육과정 규정의 건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에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설된 간호과 담당교사는 이미 기본자격을 갖추고 있는 정규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 이수한자가 교수토록 관계 규정(학교졸업을 자격기준으로 하는자에 대한 자격증 수여과목 1955. 3. 12 문교부 고시 제12호)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안 내용설명

- 1) 이미 정부시책에 의하여 정규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후 국가가 발부하는 간호원의 면허를 소지한 자격자가 1958년부터 계속 배출되어 전공분야를 통한 교육지도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하고자 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치 않고 타 과목 전공자에게 단기훈련에 의한 교육실시를 시도함은 원칙을 무시함은 물론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 2) 현재 전문간호교육과정의 내용은 환자간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가족의 건강증진과 국민보건지도는 물론 평시와 비상시를 대비하는 응급시 간호를 그 중요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교육 과정으로서의 간호과(科) 교과활동은 전공학을 이수한 자로서 담당케 함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겠습니다.
- 3) 교사의 즉각적인 증원대책으로 이미 주지의 사설이나 다음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ㄱ) 1958년부터 정규대학 간호학과 출신이 계속 배출되어 현재 약 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ㄴ) 현재 9개 대학교에 간호학 전공학생이 2,500여명이 있어서 그 졸업생수는 매년 증가될 것입니다.

연도별 졸업 예정자수

1971년도.....186명 1972년도.....393명 1973년도.....457명 1974년도.....706명

- ㄷ) 간호학교 출신으로 일반 및 사범계대학 졸업자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약 200명
- ㄹ) 간호대학 졸업자로 현재는 가정에 있으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약 700명 (70년 간호학교 실태조사에 의함)
- ㅁ) 간호학교 졸업자로 이미 교직과목 이수한 후 양호교사 직책으로 고등학교에 복직하고 있는 이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70년 8월 8일

대한간호협회장 홍신영